

# 勞 “산재 예방 실질 효과”... 經 “비용 부담에 경영 악화”

〈노동계〉

〈경영계〉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노동·경제계 입장은?

5일 뒤부터 광주·전남 사업체 36.2% 적용...5인 미만만 63.7%  
산업계 “중소기업, 안전체계 구축 마련 인력·비용 감당 못해”  
노동계 “산재 사망사고 70%가 소형 사업장... 더 일찍 적용돼야”

정부가 유예 입장을 밝히었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2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 노동계와 경제계가 확인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산재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됐으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경제계는 영세 사업장을 옥죄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광주·전남에는 총 12만 3229곳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규제를 받은 광주전남 사업체(50인 이상 사업체)는 2%

(2535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광주·전남 사업체 중 36.2%(50인 이상 포함)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머지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63.7%(7만8546곳)에 해당한다. 광주지역 경제계는 영세업체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는다면 경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안전관련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와 안전설비 추가 설치 등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당장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되는 박승호 동서그린(광주시 북구 월출동) 이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개인의 부주의까지 원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 시행 이후 관건은 안전보건 구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인데 현재 체계는 대기업 위주여서 중소기업은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며 “중소기업은 인력·비용적인 측면에서 대기업에 따라갈 수 없고, 결국은 조건을 갖춘 대기업에 입금이 물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이 시행되면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꾸리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업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인을 배치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것도 의무

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또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 여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결국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하지만 소규모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버겁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안전 보건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컨설팅과 설비 보강, 안전보강 조치 등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쉽지 않다”며 “2년간 입법을 유예한다면 그 기간동안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상 민주노동 건설노조 광주·전남 조직국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의 70% 이상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그동안 빠져 있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더 빠르게 적용돼야 하는 아쉬움이 드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는 2년 유예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답답하다”며 “짧지않은 유예 기간동안 대비하지 않다 이제와서 영세사업장 격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민주노동 전남 노동보건안전 국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지는 이들을 한해 2000여명이 넘고 이중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지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 광주분부는 23일 오후 2시 국민의 힘 광주시당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유예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단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서 글로벌 대학 공청회 교육부가 22일 광주 힐스테이인 광주 호텔에서 '2024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시안)' 공청회를 열고 있다. 교육부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위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으로 올해 1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대우위니아 임금체불 해결 나서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회견...“경영진 구속 집회 지속”

법정관리 3개월째를 맞이한 대우위니아 노동자들이 경영진에 대해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위니아 경영진은 체불임금지급 약속을 지키고 광주시는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불임금지급을 약속했으나 골프장 매각대금 등을 체불임금 해결에 쓰지 않는 등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130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회사가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사태로 청산절차가 진행된다면 노동

자들은 3개월분이 체불임금과 퇴직금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체불임금을 정리하지 않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임금체불 정리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경영진 구속을 위한 집회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대우위니아 노동자는 광주지역 노동자로 광주시가 적극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19일 광주 소재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제경팅 상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단민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전남 대학가, 올해도 등록금 동결

광주대, 15년 연속...조선대, 등록금 심의 절차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이 올해도 등록금 동결에 나섰다.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5.64%로 상향했으나 실제 인상에 나선 대학이 나올지의 문이라는 게 대학가의 관측이다. 22일 광주·전남 대학가에 따르면 광주대학교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학년도 학부(과)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광주대는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

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대는 2010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게 됐다. 전남대도 이미 등록금을 동결했고 순천대는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지난해와 같은 액수로 묶었다. 순천대의 2024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은 학기당 인문사회계열 165만 3000원, 자연계열 199만 8000원, 공학계열 216만 3000원이다.

조선대는 등록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인상 여부가 불투명하다. 조선대 관계자는 “신입생이 감소한 데다 10여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하는 바람에 재정 상황이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5.64%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9%포인트(p) 올랐다. 하지만 등록금을 올리면 수역~수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II를 놓치고,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서구 60세 이상 치매검사 전 과정 무료

치매안심센터 1~2단계 검사 후 추가 감별시 3단계 검사

광주시 서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 60세 이상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사 3단계(선별·진단·감별) 전 과정을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치매검사 1~2단계(선별·진단) 검사는 서구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3단계(감별) 검사는 센터와 협약을 맺은 7개 병원(광주한국병원, 미래로21병원, 서광병원, 무지개병원, 손의주신경과, 해피뷰의원, 허옥신경과)에서 받을 수 있다.

연령 외 소득 기준 등 다른 제한은 없으며, 먼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1~2단계 검사를 받은 뒤 추가 감별이 필요한 경우 3단계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3단계 검사 중 기본 검사 외 추가 검사를 받아 검사비가 8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서구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치매검사 지원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184명을 조기 발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겨자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학 과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
	한국어교육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
사 범	유아교육과		○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총 계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 형 일: 2024. 1. 12(금)

###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원서접수: 2024. 1. 11(목) ~ 24(수)  
전 형 일: 2024. 1. 26(금) 오후 2시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1. 3(수) ~ 6(토)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